

# 헝가리 집시(로마니)족 선교보고 / 기도편지

2023년 4월 3일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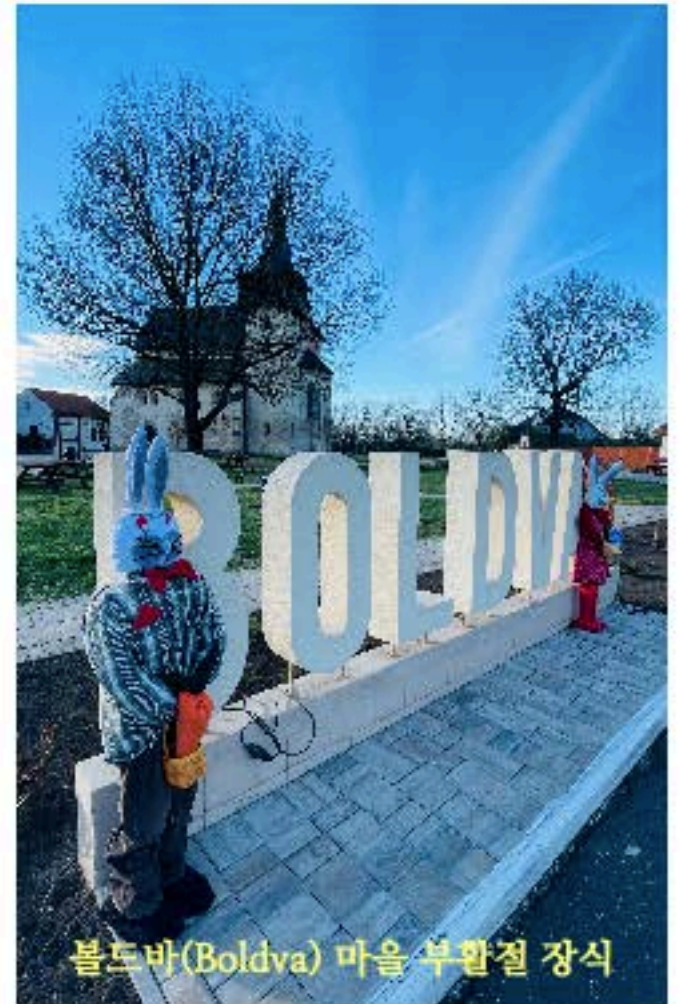
## 1. 부활절이 오면 헝가리는 마을마다 어김없이 부활절 장식을 합니다.

지난 겨울은 세계적인 이상 기온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추워져서 정말 봄이 오려나 싶었습니다. 3월 말인 지난 주까지도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마을 앞에 부활절 장식이 세워지면서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개나리 꽃이 피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시촌도 이제 부활절 사역이 시작됩니다.

볼드바(Boldva) 마을 앞 광장, 볼드바 개척교회 건물 앞에도 부활절 장식이 세워졌습니다. 볼드바 개척교회 건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1517년 보다 몇 년 후에 세워져 현재 500년이 넘는 예배당입니다. 헝가리 개척교회의 역사가 그만큼 길다는 뜻입니다. 볼드바 개척교회는 저희가 개척하여 헌당을 한 볼드바 집시(로마니) 교회에서 200미터 정도 옆에 있습니다. 볼드바 개척교회 목사님 내외분을 비롯한 성도들도 저희 사역을 동역하며 기도 많이 해줍니다.

저희 헝가리 집시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부족한 저희가 이만큼이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1/4분기 선교보고 기도편지 드립니다.

특별히 매년 부활절마다 하는 집시촌 구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볼드바(Boldva) 마을 부활절 장식

## 2. 새해 첫 주, 8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배 처소 방문해서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그리고 8번째 교회를 개척한 보르쇼드시락(Borsodszirák) 마을에 사는 집시(로마니) 형제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는 그 동안 8번째 집시(로마니) 교회 개척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마을이 어디인지 여러 집시촌을 다니며 찾았습니다. 여러 개척 후보 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보르쇼드시락 마을에 8번째 교회의 개척을 허락하셨습니다. 보르쇼드시락은 저희가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볼드바(Boldva) 교회와 에델리니(Edelény) 교회 중간에 있는 마을로 많은 집시(로마니)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8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그 마을에서 볼드바교회까지 매주 버스를 타고 출석하는 몇 가정의 집시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도 집시(로마니) 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그리고 8번째 교회를 개척한 보르쇼드시락(Borsodszirák) 마을에 사는 집시(로마니) 형제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는 그 동안 8번째 집시(로마니) 교회 개척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마을이 어디인지 여러 집시촌을 다니며 찾았습니다. 여러 개척 후보 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보르쇼드시락 마을에 8번째



예배 처소 앞, 까로이(좌) & 졸트 형제

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에게 교회 개척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한 결과 지난 연말에 주께서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셔서 새해 첫 주인 1월 7일에 개척 예배를 드



린 것입니다. 개척 후 지금까지 매주 20~3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는 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 회관 별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건물로 저희 교회가 모이는 방은 30여 개의 의자를 놓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이 마을에 사는 많은 집시(로마니)족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척 멤버로 함께 교회를 개척한 까로이(Karoly) 형제 가족과 졸트(Zsolt) 형제 가족이 교회의 기둥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저희는 까로이 형제와 졸트 형제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집시족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형제 모두 그 동안 버스를 타고 볼드바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아주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본인들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보르쇼드시락교회와 이 두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르쇼드시락교회, 개척예배

### 3. 슬로바키아 질리나 한인교회 후원 집시촌 사역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Zilina) 한인교회(담임목사 장종국)는 제가 여러 번 가서 강단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기아자동차 공장 과 여러 협력 업체들이 있어서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월 첫 주, 질리나교회에서 모은 구호 물품을 한 차 가득 싣고 정세영 이은미 집사님 내외분이 딸 예나와 함께 오셔서 에델리니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구호 물품과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이은미 집사님은 키보드 반주로 찬양팀을 도와주셨고, 온 가족이 예배 후에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들어 에델리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주셔서 얼마나 큰 동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질리나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하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세영, 김은미 집사님(딸 예나)

#### 4. 티보르(Tibor)와 나탈리아(Natália), 이들의 성장을 보면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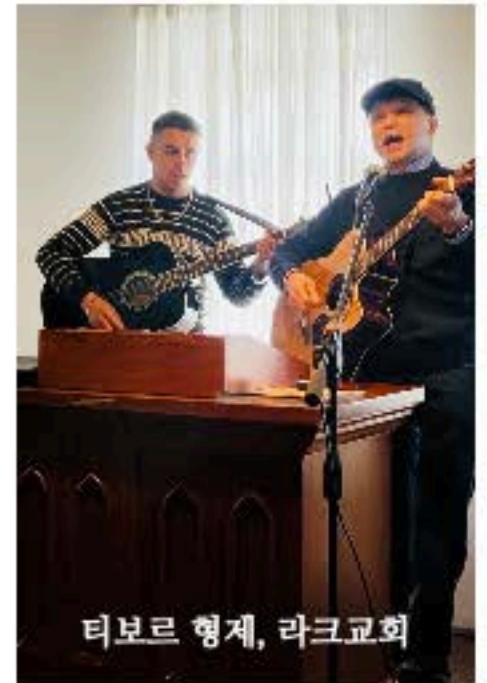
드디어 티보르(Tibor) 형제가 기타를 잘 배워서 라크(Lak)교회 찬양팀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티보르는 라크교회 개척 멤버인 가보르(Gábor)와 꺼띠(Kati) 부부의 셋째 아들입니다. 라크교회는 2010년 가을, 저희가 이들 부부의 집에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티보르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로 라크교회 개척 당시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성하여 역시 개척 멤버인 처비(Cabi)와 머리카(Mariká) 부부의 딸 페트라(Petrá)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애를 두었습니다. 티보르와 페트라, 이 둘 모두 라크 교회 개척 첫 날부터 열심히 신앙 생활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티보르에게 기타를 배워 나중에 찬양팀 사역을 하라고 격려하며 후원했습니다. 기타를 열심히 배우더니 드디어 올해부터 찬양팀으로 헌신하여 저와 함께 찬양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 저희를 도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티보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티보르가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나탈리아(Natália) 자매가 에델리니(Edelény)교회 예배를 마친 후 저희에게 오더니 갓 구워 따끈한 빵을 건네며 너무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가방에서 간호사 유니폼을 꺼내 보이며 드디어 자기가 미쉬콜츠 종합병원에 보조간호사로 취직되었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아 자매는



나탈리아 자매, 에델리니교회

2016년 가을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하여 에델레니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개척 멤버입니다. 나이는 아직 40이 안 됐는데 벌써 손주를 본 할머니입니다. 집시촌 아이들은 대개 15~16세가 되면 아이를 갖게 되는데 나탈리아 역시 그렇게 일찍 딸을 낳았고, 그 딸 역시 그 나이에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델리니 교회에는 나탈리아와 아버지, 그리고 나탈리아의 딸과 그녀의 아들까지 4대가 함께 출석합니다. 집시촌에는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40이 안 된 할머니인데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뜨겁게 격려하며 계속 후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번에 보조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취직한 것입니다. 대부분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집시들이라 정식 간호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탈리아는 그 학력임에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번에 보조간호사가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손수 구운 빵을 들고 와서 눈물을 글썽이는 나탈리아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를 만나서 영혼 구원은 물론 삶이 변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집시촌 형제 자매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티보르 형제, 라크교회

#### 5. 에딜(Edit) 사모님의 완치 판정, 까로이 목사님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추카추카~ 완치 판정!!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헝가리 목사님들은 사무엘, 까로이, 안드라시, 아틸라,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들 내외분과 온 가족, 그리고 섬기는 헝가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안드라시 목사님의 부인이신 에딜 사모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중반이신데 항암 등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주에 완치 판정을 받고, 집시촌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며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주말 함께 집시촌 사역을 마친 다음 안드라시 목사님과 에딜 사모님을 모시고 헝가리 식당에 가서 축하의 저녁 식

사를 대접했습니다. 식탁에 꽂힌 화사한 개나리꽃 보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마워하시는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까로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전립선암과 혈액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항암 등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지금은 거의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져서 계속 저희와 함께 볼드바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까로이 목사님께서 많이 회복되셔서 이 두 분 목사님 내외분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네 분 목



사님들은 섬기는 헝가리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약간의 사례비를 드리면서 가끔 식사 대접을 합니다. 워낙 외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좋아하시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헝가리에 믿음만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집시 선교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헝가리 교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6.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헝가리에 부임한 다음 해인 2010년도에 중고 미니밴을 구입해서 타다가 2015년 가을에 교통 사고로 자동차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중고 미니밴을 구입했었습니다. 새로 중고 미니밴을 샀지만 예배당 건축, 단기팀 사역 등 허드렛일을 위하여 교통 사고로 망가지긴 했지만 오래 된 그 차를 수리해서 지금까지 12년 이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통 사고로 많이 망가진데다 주행 거리가 수십 만 km가 될 정도로 오래된 차라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 결국 폐차를 했습니다. 2015년에 샀던 두번 째 중고 미니밴도 그 동안 많이 타서 주행 거리가 30만 km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차 한 대로는 저희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집시선교사, 박완주 박미영 드림

### 7. 기도 제목입니다.

- (1) 8번째 개척, 보르쇼드시락(Borsodszirak)교회의 건강한 성장 위하여.
- (2) 까로이와 졸트, 그리고 티보르가 신학공부하여 주의 종이 되도록.
- (3) 라크교회 라찌(Laci) 형제의 신학 공부와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 (4) 동역하는 사무엘, 까로이, 안드라시, 아틸라 목사님을 위하여.
- (5) 집시촌에 세워진 8개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 (6) 각 교회에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본이 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 (7) 10-10프로젝트(10교회/10 집시족 목회자)가 성취되도록.
- (8) 사역을 위해 필요한 새 자동차(미니 밴) 구입을 위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 (9) 올해 헝가리 집시촌에 오는 단기팀의 일정과 건강, 안전을 위하여.
- (10)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절기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Easter~!!